

로얄제리의 정명도(正明道)

팔용산 양봉원 종봉연구소 승병권 대표

지난 세월 순박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변화의 바람은 성역을 두지 않는다. 무한경쟁시대에 특정한 영역의 안정을 바랄 수 없는 지금, 변변한 약도 없었던 시기에 만병통치약이지 보약으로 각광받았던 벌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양봉계의 우각(牛角)같은 팔용산 양봉원 종봉연구소 승병권 대표를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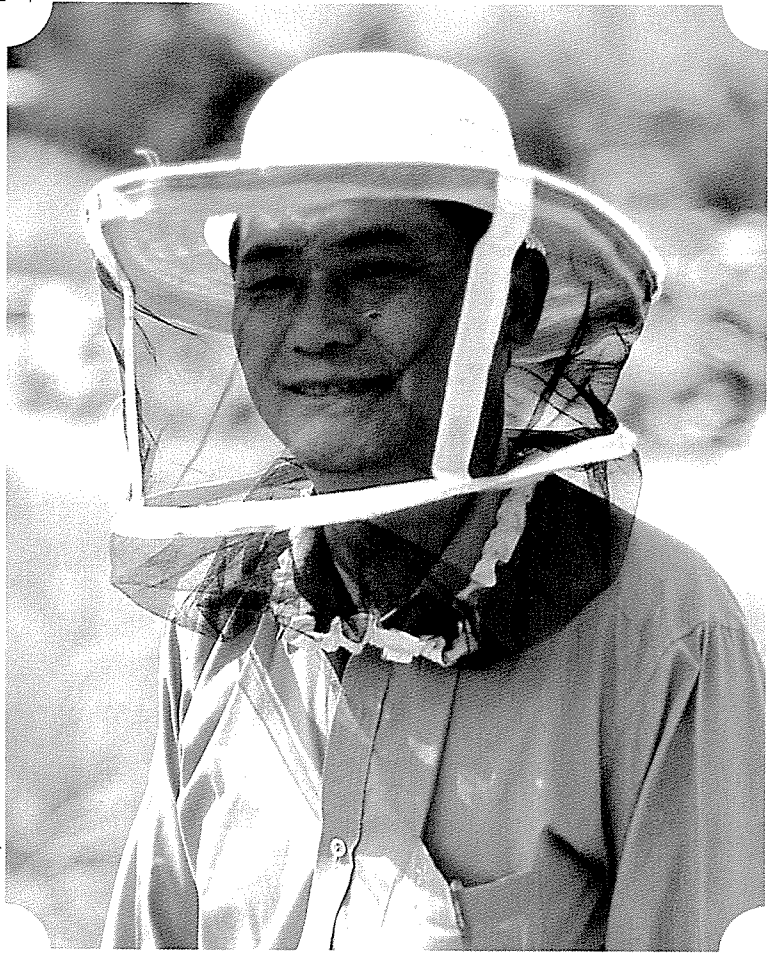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한 '수퍼 종봉' 탄생

지난 9월 20일, 팔용산 양봉원에서 '꿀벌 로얄제리 다수확 평가회'가 열렸다. 창원시가 양봉농가에 꿀벌개량과 새 양봉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유통시장에서 양봉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품질 상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날 시연을 한 개량종은 팔용산 양봉원에서 10여 년간 교잡 육성한 꿀벌로서, 1회 100~150개의 왕완을 채취할 수 있다. 이는 일반종이 1회 50~60개의 로얄제리 왕완을 채취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서 일반농가에 고소득을 가져다줄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승 대표는 "이번 꿀벌 개량으로 품종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우수 품종을 보급하게 됐다"며 "양봉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다. 올해로 27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승 대표는 "꿀벌이 만들어 내는 것 중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며 "꿀벌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곤충"이라 말한다.

"꿀벌은 현대의 농업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딸기, 참외 등의 하우스 재배에서 꿀벌을 넣지 않으면 수정이 어려워 농사를 망치게 되지요. 대단위 과수단지에서도 개화시에 꿀벌이 없으면 안정적인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분매개용 꿀벌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세계 175여 국가 중 연간 0.1t 이상의 벌꿀을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국가에 달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들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벌꿀의 전체 생산량은 100만t 정도이며 과거 10년간 다소 변동은 있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 대표는 "세계적으로 꿀의 가격은 종류와 품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Kg당 US \$1.5-2 (약 2,000-2,600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국산꿀 가격은 10,000원 수준으로 가격경

쟁력에서 외국산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라 밝힌다. 또한 그는 최근 세계 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가의 위기에 대해 “양봉산업도 예외는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양봉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능성 꿀 생산을 통해 차별화를 뒤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진 국내 벌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힌다. 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승병권 대표 ▶

▶승병권 대표가 걸어온 길

- 창원시 새마을청소년연합회장(전)
- 창원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전)
- 창원시 시정 자문위원(전)
- 경상남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전)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전)
- 한국농어민신문사 감사(전)
- 한국 농민 후계자 유통사업단 이사 및 감사(전)
- 팔용산 양봉원 종봉연구소(현)

또한 그는 “꿀의 생산성과 함께 품질의 고급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꿀의 품질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품질 제도를 직접 챙기거나 정부의 지원 아래 공신력 있는 협회나 조합 단위를 지정해 철저하고 엄격한 제품 표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정책적으로 양봉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앞으로 승병권 대표는 한국양봉협회의 지원 아래 우수한 중봉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양봉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변함없이 관례대로 이어온 양봉

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수한 종봉을 연구, 보급하여 직접적인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현재 그의 양봉원을 전국에서 많은 양봉인들이 찾고 있다. 이는 그가 개발한 종봉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봉연구가로서의 노력과 더불어 남다른 인생관이 그를 돋보이게 한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맏이로 자랐습니다. 없어서 못 배운 공부와 못 먹는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저처럼 어려운 형편의 친구 다섯 명을 제 손으로 뒷바라지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키운 이 다섯 친구가 다시 어려운 아이들을 돕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다. 승병권 대표가 바라는 따뜻한 사회가 어서 빨리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벌과 꿀 이야기

벌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벌 독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벌 자체를 소금으로 볶아 먹으면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인의 냉대하증에도 좋다고 허준 선생은 언급했다. 동의보감에는 벌 꿀에 대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푼다.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험한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고 했다. 꿀 속에서는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 티프스균은 48시간 만에, 폐렴균은 4일내에, 아메바는 10시간 안에 사멸된다. 뿐만 아니라 꿀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전량 함유되어 급속히 피로를 회복시켜 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정력을 돋우어준다. 신혼을 ‘허니문(honeymo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꿀술 일개월’이란 뜻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신혼부부에게 한달 동안 꿀로 만든 술을 마시게 하여 유래했다는데, 꿀같이 달콤하게 서로에게 취하지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다.

